논어 2편 위정 9장 · 원문·풀이

子曰：「吾與回言終日，不違如愚。退而省其私，亦足以發。回也不愚。」

독음 · 자왈 오여회언종일 불위여우 퇴이성기사 역족이발 회야불우

쉬운 풀이(요약) · 안회는 하루 종일 들어도 반문하지 않아 어리석어 보였지만, 물러난 뒤의 행동을 보니 가르침을 충분히 실천하고 있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吾 자기 오 오 / 與 너울너울할 여 여

回 돌 회 회 / 言 말씀 언 언 / 終 끝낼 종 종 / 日 날 일 일

不 아닐 불 / 違 어길 위 위 / 如 같을 여 여 / 愚 어리석을 우 우

退 물러갈 퇴 퇴 / 而 말이을 이 / 省 살필 성 성 / 其 그 기

私 사사 사 사 / 亦 또 역 / 足 발 족 족 / 以 써 이 이

發 쏠 발 발 / 也 어조사 야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